

## 주요 내용

1. [미국 한인교회 교인 의식조사]  
미국 한인교회, 코로나 기간 중 한국교회보다 신앙이 더 강해져!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2022년 한국인의 복권 구입 실태
  - 2) 신혼부부 통계
  - 3) 한국사회의 악\_직장 내 폭언 행태
3. [넘버즈 칼럼] 2022년 세계 기독교의 7가지 고무적인 트렌드



# 미국 한인교회, 코로나 기간 중 한국교회보다 신앙이 더 강해져!

미국 한인교회는 신앙을 가진 이민자들이 주축이 된 교회이다. 그리고 이민생활을 하면서 한인들끼리의 커뮤니티가 발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가진다. 그래서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은 대체로 한국교회보다 전통적이며 보수적이고, 출석교회에 대해 충성적이며 소속감이 강하다.

최근 CTS America가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앙의식과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전문기관에 의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였는데 이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적 활동이 약화된 한국교회와는 달리 미국 한인교회는 신앙이 더 강해지는 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교포사회에서 더 친밀할 수 밖에 없는 '소그룹'의 결속력에 있는데, '소그룹'은 플로팅 크리스천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한국 교회에서 중요한 목회 전략의 키워드이기도 하다.

이번 <넘버즈 176호>에서는 미국 한인교회 교인 조사 결과를 한국교회와 비교하여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양국 한인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한인교회 교인 의식 조사 결과

본 조사는 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미국 한인교회 최초의 종합적인 실태조사로서, 여기서는 한국교회와 비교하기 위해 한국교회 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다만 한국은 온라인조사를 실시한 반면, 미국은 목회자를 통한 스노우볼링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양국 간의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기 위해 한국교회 조사 결과 데이터는 미국 교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매주 주일예배 참여자(온라인 포함)’를 기준으로 하였다.(이하 한국교회 Data는 동일하게 적용함)

따라서 본 조사 결과는 한미 간 교인들 전체를 대표하는 조사라기보다, 교회에 보다 충성적인 교인(매주 주일예배 참석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결과 해석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 조사 대상	미국 뉴욕/아틀란타/LA 지역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 조사 방법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 미국 한인교회의 경우 목회자들에게 먼저 설문 URL을 전달한 후 목회자가 그들의 교인들에게 다시 설문 URL을 전달해서 모바일로 응답받은 ‘스노우 볼링’(Snow Balling) 방식을 취함
• 표본 규모	총 77개 교회, 1,580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방법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e)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2022년 9월 23일 ~ 10월 7일(14일간)
• 조사 의뢰 기관	CTS America
• 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목회데이터연구소
•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본 조사와 비교하는 한국교회 조사 결과 출처  
: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 보고서(개신교인 4차, 2022.05)’ (전국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2022.04)

# 01

## [교인 특성]

### 미국 한인교회, 한국교회보다 더 고령화돼!

- ▶ 양국 간 교인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교회는 60세 이상이 38%인데 반해, 미국 한인교회는 60세 이상이 53%로 미국이 한국보다 더 고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교인 특성 (성/연령)

구분		미국 한인교회	한국 교회*
전체		100%	100%
성별	남성	34%	41%
	여성	66%	59%
연령	39세 이하	5%	<b>26%</b>
	40~49세	18%	17%
	50~59세	25%	19%
	60세 이상	<b>53%</b>	38%

\*한국 교회는 매주 주일예배 참여자 기준 (온라인 예배 포함) - 코로나 4차 추적조사 보고서(전국 개신교인 1,500명, 202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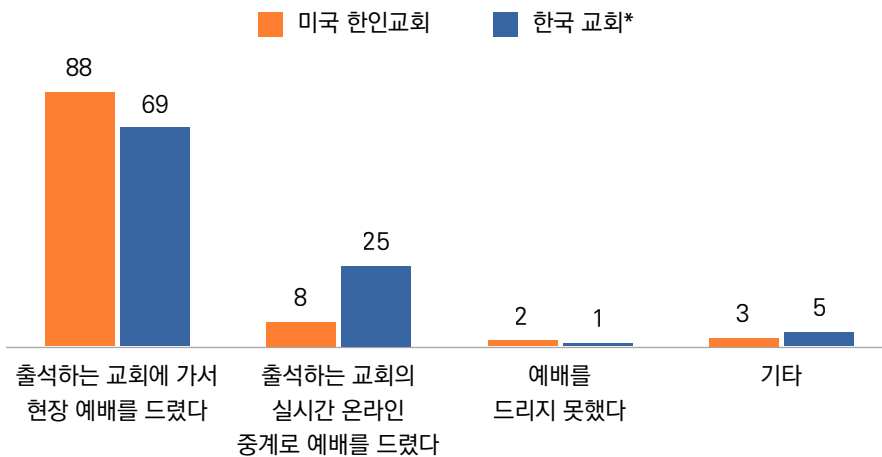
# 02

## [교회생활]

### 미국 한인교회 교인, 한국보다 현장예배 드리는 비율 높아!

- ▶ 지난 주일에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물었다.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현장예배를 드렸다’가 88%로 미국 한인교회 교인 대부분이 교회에 출석해 현장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한국교회와 비교하면 현장예배 참여율이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특징이 나타난다.

[그림] 지난 주일예배 드린 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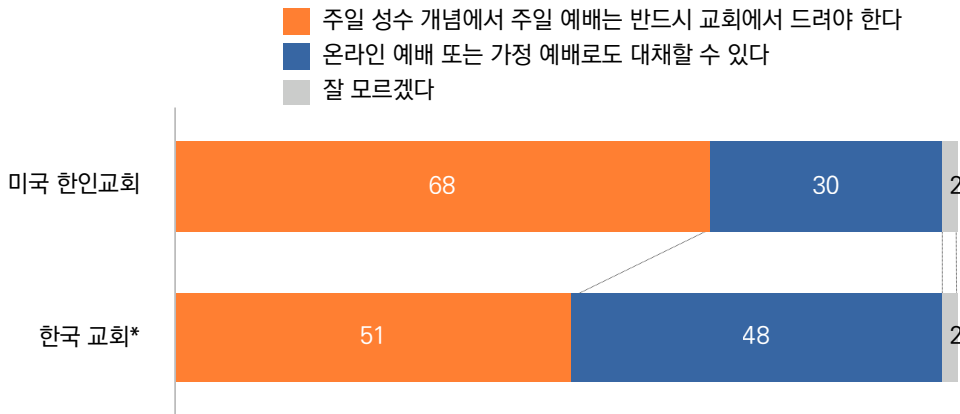


\*한국 교회는 매주 주일예배 참여자 기준 (온라인예배 포함) - 코로나 4차 추적조사 보고서(전국 개신교인 1,500명, 2022.05)

## ◎ 주일성수 의식,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이 한국보다 더 전통적/보수적!

- ▶ 주일성수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응답자 10명 중 7명(68%)는 '주일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 ▶ 한국교회 출석자들은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함', '주일 예배를 온라인/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음'이 각각 51%, 48%로 비슷하게 응답했는데,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의 경우 한국교회보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 한국보다 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주일성수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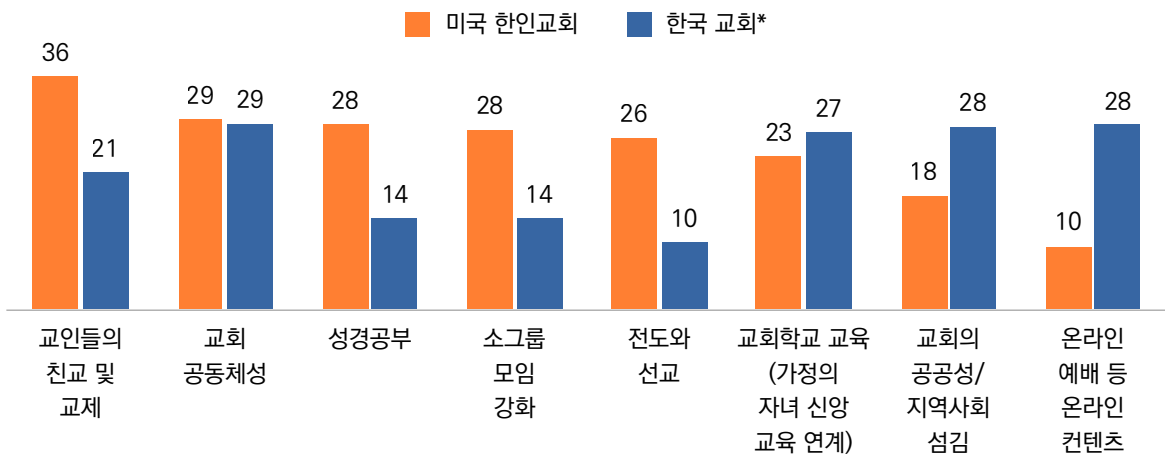


\*한국 교회는 매주 주일예배 참여자 기준 (온라인예배 포함) - 코로나 4차 추적조사 보고서(전국 개신교인 1,500명, 2022.05)

## ◎ 2023년 중점 강화 사역, '친교/교제', '소그룹' 요인이 한국보다 훨씬 강해!

- ▶ 2023년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교인들의 친교 및 교제'가 36%로 가장 높았으며, '교회 공동체성' 29%, '성경공부' 28%, '소그룹 모임 강화' 28% 순으로 응답되었다.
- ▶ '교인들의 친교 및 교제', '교회 공동체성', '소그룹 모임 강화' 3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은 공통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어려웠던 '친교/공동체성 사역'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한국교회보다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에게서 강화 요구가 높았다.

[그림] 2023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사역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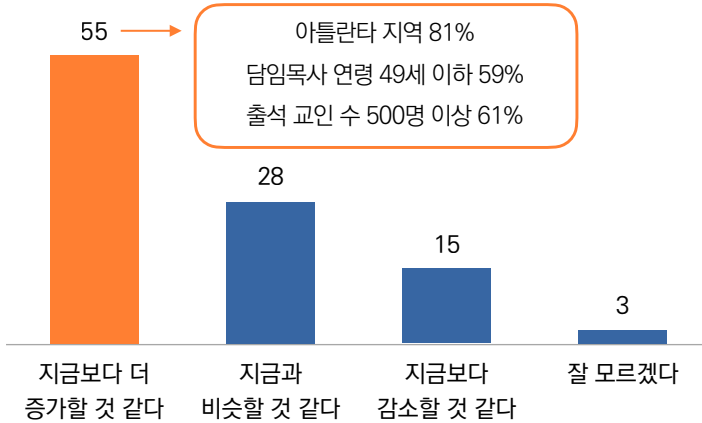


\*한국 교회는 매주 주일예배 참여자 기준 (온라인예배 포함) - 코로나 4차 추적조사 보고서(전국 개신교인 1,500명, 2022.05)

## ◎ 미국 한인교회 교인의 절반 이상, '향후 교인 수,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

- ▶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향후 교인 수에 대한 예상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55%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 같다' 라는 낙관적인 예측을 하였다.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출석교회의 담임목사 연령대가 낮을수록, 출석교인수가 많을수록 낙관적인 전망이 높았다.
- ▶ 한편, 이번 조사가 뉴욕, 아틀란타, LA 등 3개 지역에서 진행됐는데, 3개 지역 중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동남부의 아틀란타 지역 교인들에게서 낙관적인 전망이 가장 높은 점이 주목된다.

[그림] 향후 교인 수 예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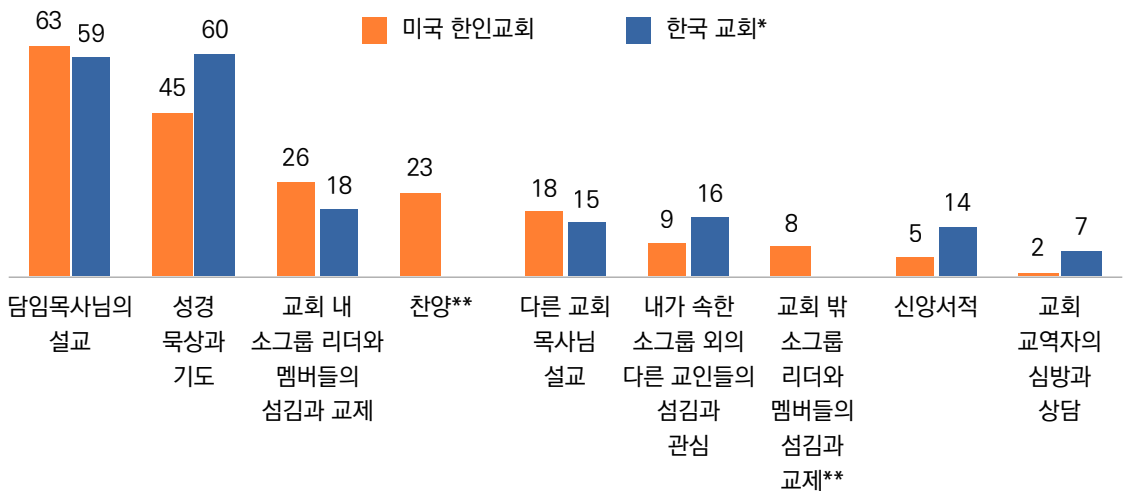
# 03

## [신앙생활]

### 코로나 시기 '설교'와 '소그룹' 영향력, 한국보다 더 커!

-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앙을 지키는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물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경 묵상과 기도' 45%, '소그룹 교제' 26% 순으로 응답됐다.
- ▶ 한국교회와 비교하면,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담임목사 설교'와 '소그룹' 요인이 한국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시기에 신앙에 도움받은 것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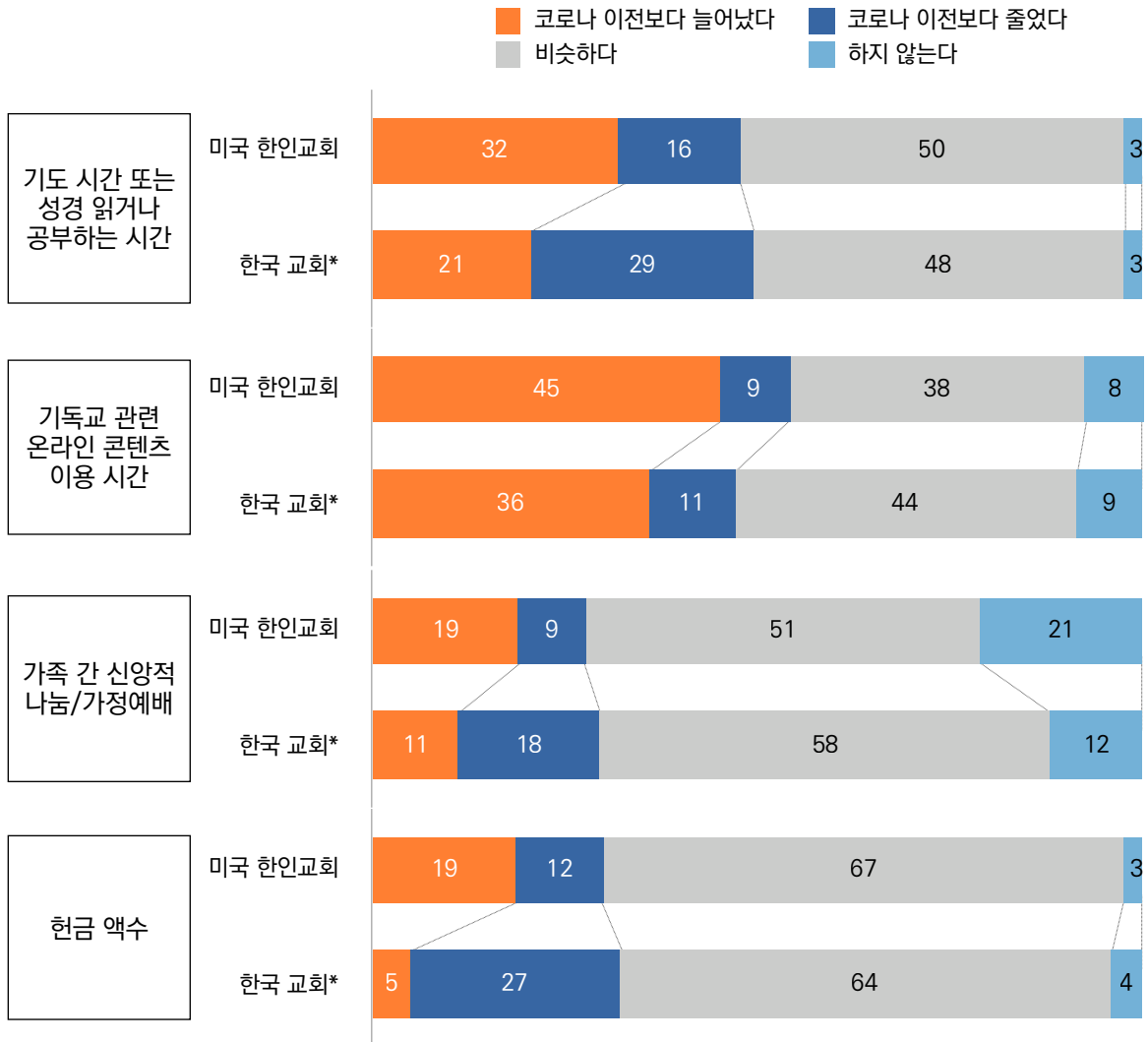
\*한국 교회는 매주 주일예배 참여자 기준 (온라인예배 포함) - 코로나 4차 추적조사 보고서(전국 개신교인 1,500명, 2022.05)

\*\*한국교회 조사에서는 보기항목으로 넣지 않았음.

## ◎ 코로나 이후 미국 한인교회 교인의 양적 신앙생활, 한국보다 훨씬 활발!

- ▶ 코로나19 전후 신앙생활의 양적 변화를 속성별로 측정했더니 제시된 4가지 항목에서 모두 ‘코로나 이전보다 줄었다’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독교 관련 온라인 콘텐츠 이용시간’은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의 비율이 45%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 ▶ 한국교회와 비교해 한인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양적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전후 양적 신앙생활 변화 (속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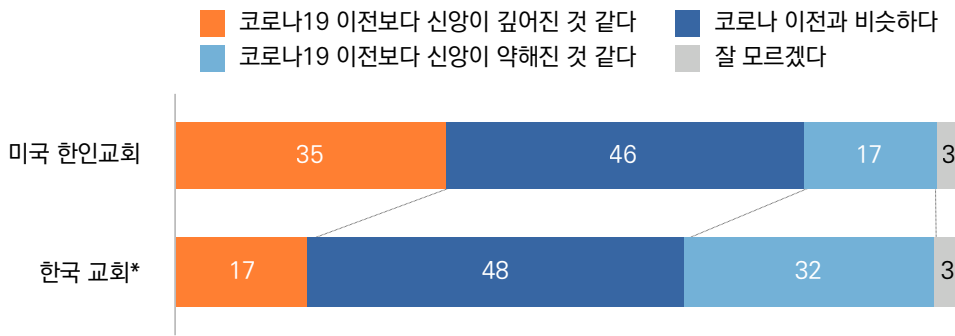


\*한국 교회는 매주 주일예배 참여자 기준 (온라인예배 포함) - 코로나 4차 추적조사 보고서(전국 개신교인 1,500명, 2022.05)

## ◎ 코로나 전후 신앙의 질적 변화, 미국 한인교회가 한국보다 더 강해져

- ▶ 코로나19 전후 신앙생활의 질적 변화를 측정했더니 미국 한인교회 교인 35%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는 17%로, 신앙이 약해졌다는 비율보다 깊어졌다는 비율이 2배 높게 응답되었다.
- ▶ 한국교회와 비교했을 때,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은 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 코로나를 통해 신앙 수준이 질적으로 오히려 깊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코로나19 전후 질적 신앙수준 변화 (%)



\*한국 교회는 매주 주일예배 참여자 기준 (온라인예배 포함) - 코로나 4차 추적조사 보고서(전국 개신교인 1,500명, 202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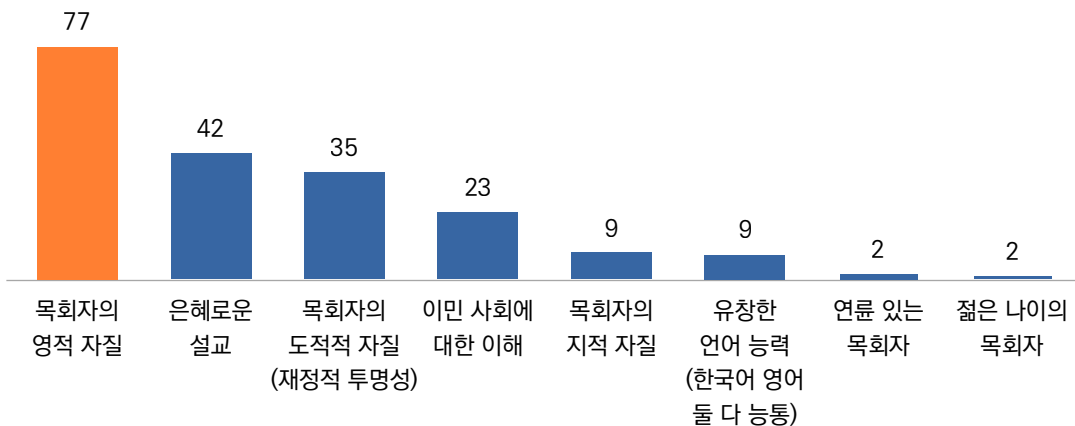
# 04

## [목회자 인식]

### 이민교회 목회자의 조건, 영어보다 ‘영적 자질’이 중요 77%

- ▶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은 이민 교회 목사가 가져야 할 조건에서 ‘목회자의 영적 자질’을 77%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은혜로운 설교’ 42%, ‘목회자의 도덕적 자질’ 35% 순으로 응답해 전반적으로 목회자의 영적인 면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반면 유창한 언어 능력은 9%로 높지 않았다.

[그림] 이민교회 목사가 가져야 할 조건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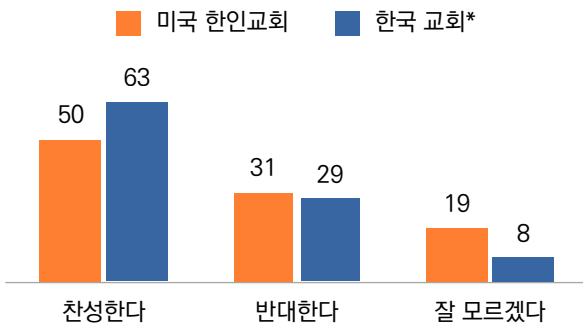




## ◎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인식, 미국 교인이 한국보다 찬성 비율 더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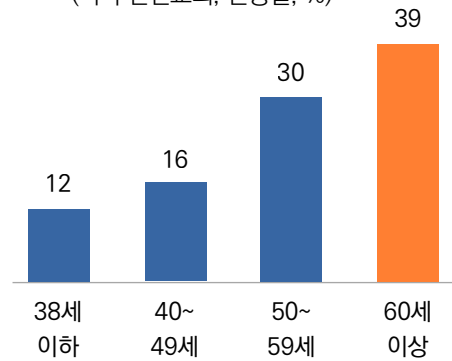
- ▶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은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0%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1%로 찬성비율이 더 높았다. 이중직을 반대하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는데, 이는 세대 간에 이중직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게 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 ▶ 한국교회 교인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이 한국교회보다는 이중직을 수용하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의견 (%)



\*한국 교회는 매주 주일예배 참여자 기준 (온라인예배 포함)  
- 코로나 4차 추적조사 보고서(전국 개신교인 1,500명, 2022.05)

[그림] 목회자의 이중직 '반대한다' 비율 (미국 한인교회,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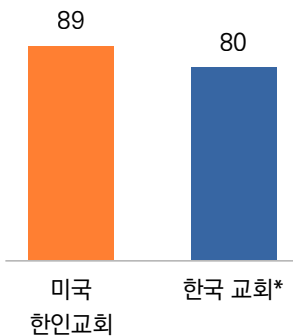
# 05

## [소그룹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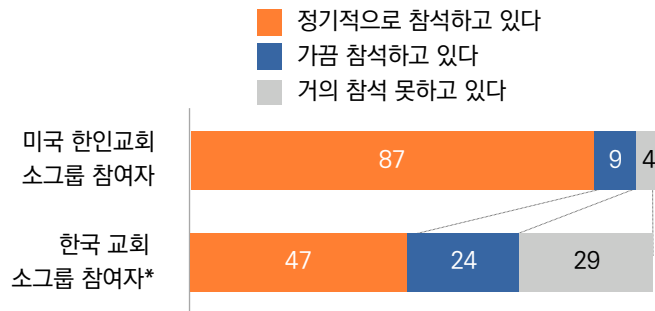
## 미국 한인교회 교인, 한국보다 소그룹 참여도 매우 높아!

- ▶ 현재 소그룹에 속해 있는 비율은 89%로 미국 한인교회 교인 거의 대부분이 소그룹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교회는 소그룹에 속한 비율이 80%로, 미국 한인교회와 비교하면 9%p나 낮았다.
- ▶ 출석교회 소그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석 빈도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87%)이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와 비교했을 때,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는 비율에서 40%p 차이가 났으며, '거의 참석 못하고 있다'의 비율은 25%p 차이가 났다. 즉,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의 소그룹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참여하는 출석교회 소그룹 모임 '있다' 비율 (%)



[그림] 출석교회 소그룹 모임 참여 정도 (출석교회 소그룹 모임에 속한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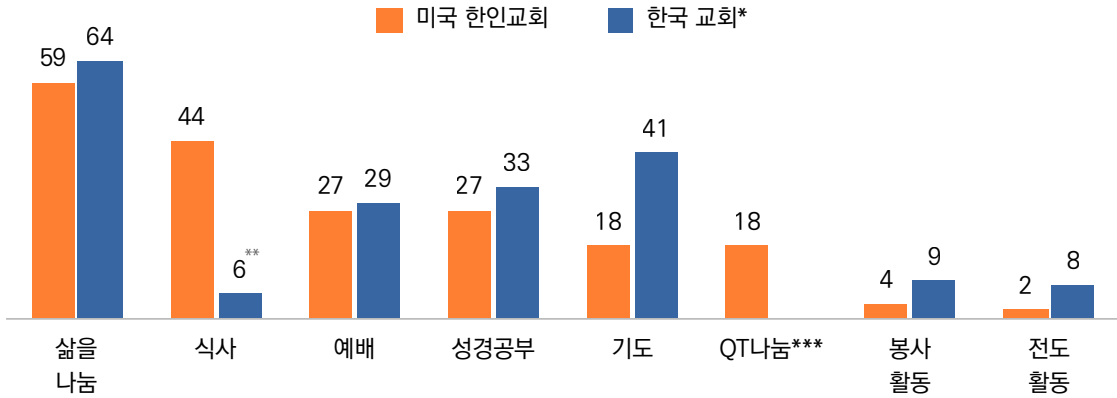


\*한국 교회는 매주 주일예배 참여자 기준 (온라인예배 포함) - 코로나 4차 추적조사 보고서(전국 개신교인 1,500명, 2022.05)

## ◎ 소그룹 모임의 중요 활동, ‘삶을 나눔’과 ‘식사’!

- ▶ 참여중인 소그룹 모임에서 중요시하는 활동을 물어보았다. 한국과 미국 동일하게 ‘삶을 나눔’(미국 59%, 한국 64%)이 1위로 응답됐는데, 2위가 서로 달랐다. 즉 한국은 ‘기도’가 41%로 2위였는데 미국은 ‘식사’가 44%로 2위였다. 미국 이민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소그룹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참여중인 소그룹 모임에서 중요시 하는 활동 (1+2순위, %)



\*한국 교회는 매주 주일예배 참여자 기준 (온라인예배 포함) - 코로나 4차 추적조사 보고서(전국 개신교인 1,500명, 2022.05)

\*\*한국조사는 '식사'로만 조사함

\*\*\*한국조사 항목에는 없었음

미국 내 한인 집단 이민은 1903년 1월 13일 호놀룰루에 101명이 사탕수수밭의 첫 이민자로 들어오면서 시작했다. 직접 이민을 간 한국인 이민자와 미국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를 포함하여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한국계 미국인은 192만 6,508명에 달한다.

이민 사회에서 교회는 순수한 종교적 활동과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가 그 사회에 적응하도록 정서적,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도 한다. 언어의 장벽과 이질적 사회 체제와 문화, 그리고 인종차별로 시달린 이민자들은 같은 출신 나라 사람끼리 모여 서로 교제하고 위로함으로써 마음의 침체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으며 각종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쉽게 이민 국가에 정착할 수 있게 된다.

미국 한인 사회의 성장에 기여한 미국 한인교회는 첫 집단 이민이 시작된 1903년 11월에 최초로 하와이에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가 세워지고, 1940년 3월 11일 미주 본토 로스앤젤레스에도 감리교회가 세워졌다.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KCMUSA)이 “2022 미주한인교회 센서스”를 진행하고 발간한 “2022 미주한인교회주소록”에 의하면, 2021년 10월 현재 미국 내에 한인교회는 2,798개로 확인됐다. 2019년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미국 내 한인교회가 총 3,514개였는데 2021년 조사에서는 총 2,798개로, 658개(미확인 58개) 교회가 줄어들었다.(출처: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홈페이지)

이번 「넘버즈」 176호 분석에서 주목할 것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국 한인 교인들의 신앙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점이다. 미국 한인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앙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깊어진 것 같다’가 35%, ‘약해진 것 같다’가 17%로 ‘깊어진 것 같다’가 ‘약해진 것 같다’보다 2배 더 높았다. 반면에 한국 교인들은 ‘약해진 것 같다’ 32%, ‘깊어진 것 같다’ 17%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약해진 것 같다’가 2배 가까이 더 높아서 한인 교회와 정반대 현상을 보였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이번 「넘버

즈」 176호 분석 결과를 통해 몇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는 신앙 활동 양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국 한인교인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한국 교인보다 더 높았다. 뿐만 아니라 기도 및 성경 읽기, 기독교 관련 온라인 콘텐츠 이용, 가족간 신앙 나눔, 헌금 등 신앙 활동의 양이 한국 교회 대비 더 많았다.

둘째 소그룹 활동의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 한인 교인들이 한국 교인보다 소그룹 활동 참여율이나 참여 정도가 높았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신앙에 도움 받은 활동, 2023년 강화할 중점 사역에서도 소그룹을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고 성경공부와 기도, 그리고 QT 나눔을 하면서 서로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 받았다.

이 두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신앙의 질적 차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신앙 활동의 양과 소그룹이라는 요인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한국 교회가 참고할 만하다. 한국 교인들은 교회 의존적 신앙 생활을 하므로 교회 활동이 줄어들면 개인적 신앙 활동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신앙 습관에서 탈피하여 개인적, 주체적 신앙 생활을 하는 훈련을 하여 각자가 매일의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대적 혹은 사회적 변화와 상관없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을 세워 나갈 수 있다.

이런 신앙을 위한 동반자가 소그룹이다. 소그룹을 통해 삶을 나누며 위로와 기쁨을 얻으면서 성경이 요구하는 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을 격려하면서 한국교회의 약점인 생활신앙을 키울 수 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히 10:24~25)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소그룹을 통한 생활신앙이 강해지는 한국교회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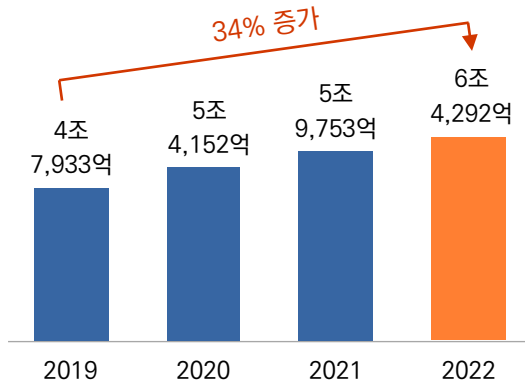
- 1.[2022년 한국인의 복권 구입 실태]
- 2.[신혼부부 통계]
- 3.[한국사회의 악\_직장 내 폭언 행태]



## 2022년 복권 판매액 6조 원 돌파...3년 사이 34% 증가!

- ▶ 불황이면 복권이 잘 팔린다는 말이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복권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권 판매액이 2022년 6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조 7,933억 원이었던 복권 판매액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3년 새 6조 4,292억 원까지 무려 34%나 늘었다.

[그림] 복권 판매액 (원)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3.01.11. (전국(제주 제외)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20명, 면접조사, 2022.10.04~1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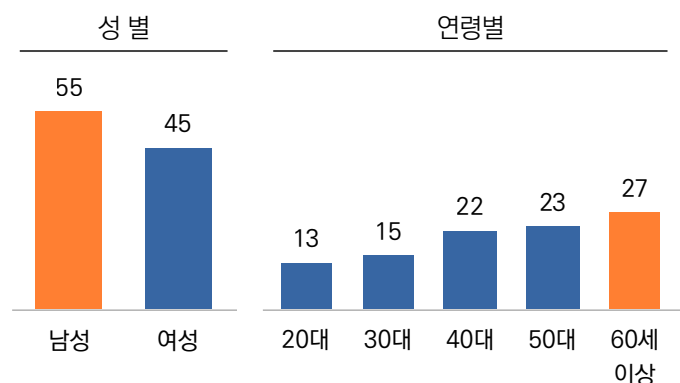
### ◎ 지난 1년간 한국 성인 10명 중 6명 가까이 복권 구입했다!

- ▶ 최근 1년 이내 복권 구매 경험을 묻은 결과, 한국 성인 10명 중 6명 가까이 ‘있다’(57%)고 응답했다.
- ▶ 복권 구매자의 성별·연령별 각각의 비중을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의 구매 비중이 높았고, 60대 이상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다.

[그림] 복권 구매 경험률 (최근 1년 이내)



[그림] 복권 구매자의 성/연령 비중 (최근 1년 이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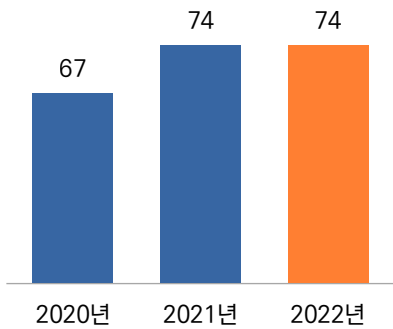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3.01.11. (전국(제주 제외)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20명, 면접조사, 2022.10.04~1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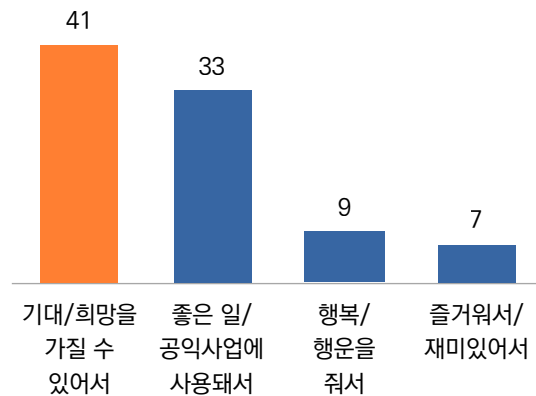
## ◎ 한국 성인 남녀 74%, '복권이 있어 좋다'!

- ▶ 우리 국민 4명 중 3명(74%)은 '복권이 있어서 좋다'고 응답해 복권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복권이 좋은 이유로는 '기대/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41%, '좋은 일/공익사업에 사용돼서' 33%로 높게 응답됐다.
- ▶ 복권이 본인에게 희망이 되는 한편,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도 일조할 수 있기에 복권에 대해 좋게 인식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림]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복권이 있어서 좋다’ 응답률, %)



[그림] 복권이 있어 좋은 이유  
(‘복권이 있어서 좋다’고 응답한 자,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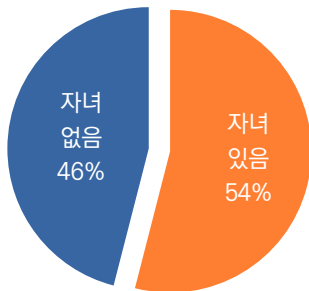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3.01.11. (전국(제주 제외)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20명, 면접조사, 2022.10.04~1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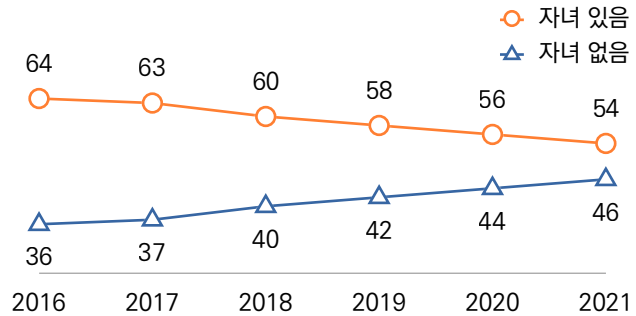
## 초혼 신혼부부 46%, '자녀 없다'!

- ▶ 2022년 12월에 발표된 '2021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혼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중 자녀가 있는 비율은 54%로 나머지 46%는 자녀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 ▶ 2016년부터 최근 5년간의 신혼부부 유자녀(자녀 있음) 비율 추이를 보면 2016년 64%, 2018년 60%, 2021년 54%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초혼 신혼부부 자녀 유무 (2021)\*\*



[그림] 초혼 신혼부부 '자녀 유무' 비율 연도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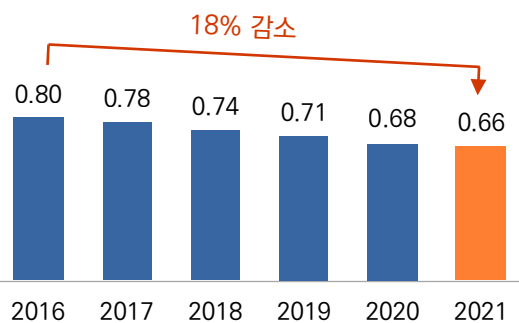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도자료, 2022.12.12

\*\*초혼 신혼부부 기준으로, 매년 11월 1일 기준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부부 중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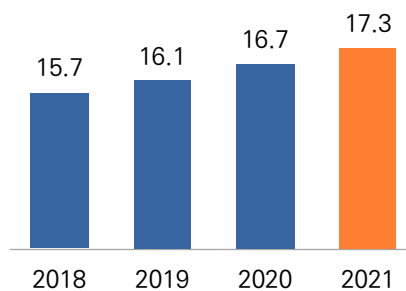
### ◎ 초혼 신혼부부 평균 자녀 수, 2021년 0.66명으로 5년 새 18% 감소!

- ▶ 우리나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녀가 있는 부부의 평균 자녀 수도 감소하고 있다. 2016년 평균 자녀 수가 0.80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0.66명까지 떨어져 5년 새 1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또, 신혼부부가 첫 자녀를 낳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2018년 15.7개월에서 2021년 17.3개월까지 늘었다. 2021년 기준 신혼부부가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데까지 평균 1년 5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그림] 초혼 신혼부부 평균 자녀 수 (%)



[그림] 초혼 신혼부부 첫째 자녀 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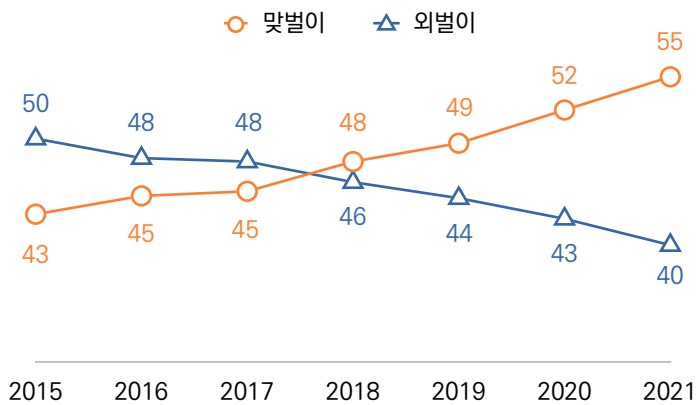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도자료, 2022.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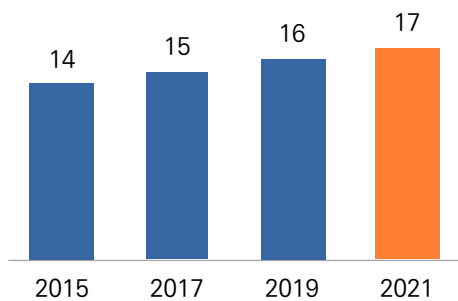
## ◎ 외벌이 신혼부부 6쌍 중 1쌍(17%), ‘아내가 일한다!’

- ▶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유형을 보면 ‘맞벌이’ 55%, ‘외벌이’ 40%였고, 전체 외벌이 부부 중 아내 혼자 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는 17%, 즉 외벌이 부부 6쌍 중 1쌍꼴로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소폭이기는 하나 ‘아내 외벌이 비율’이 2015년 14%에서 2019년 16%, 2021년 17%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 ▶ 또, 아내 외벌이의 경우 무자녀 비율이 56%로 맞벌이 부부(50%)와 남편 외벌이 부부(37%)의 무자녀 비율보다 높은 게 특징적이다. 아내의 경제적 부담 정도가 자녀 출산 등 자녀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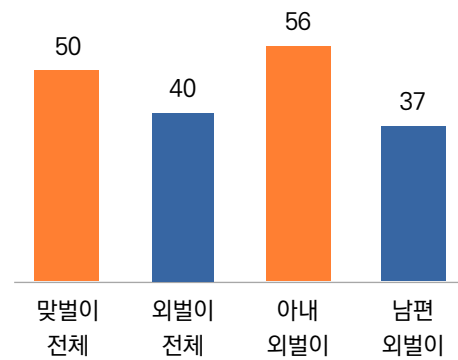
[그림] 초혼 신혼부부의 맞벌이·외벌이 추이\* (%)



[그림] 외벌이 신혼부부 중 아내 외벌이 비율\*\* (%)



[그림]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유형별 ‘무자녀’ 비율 비교\* (2021,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도자료, 2022.12.12. / 기타(무직, 가사, 미상 등)는 제외

\*\*자료 출처 : 중앙일보, “주변서 이상하게 안봐요” 외벌이 6쌍중 1쌍은 아내가 돈 번다 기사 참조, 2023.01.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1344#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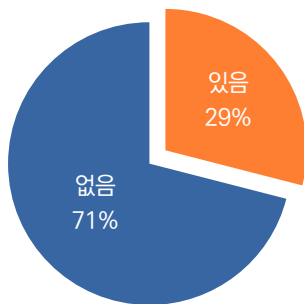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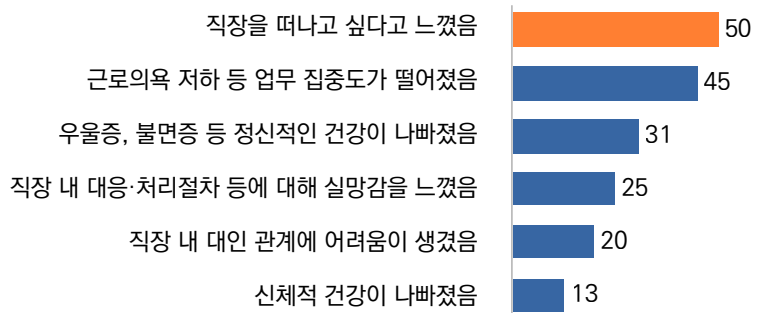
## 한국 직장인 10명 중 3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하고 있다!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3년이 넘었는데 현재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직장인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를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29%가 '있다'고 답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영향으로는 '직장을 떠나고 싶다고 느꼈음' 50%,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음' 45%의 답변이 높게 나타났고, 이외에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 건강이 나빠졌음' 31%, '직장 내 대응 처리절차 등에 실망감을 느꼈음' 25% 등의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 갑질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는 근로 의지와 의욕 저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신체적·정신적으로는 건강의 저하를 가져오는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큼을 보여준다.

[그림]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 (지난 1년 동안 기준)



[그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영향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상위 6위,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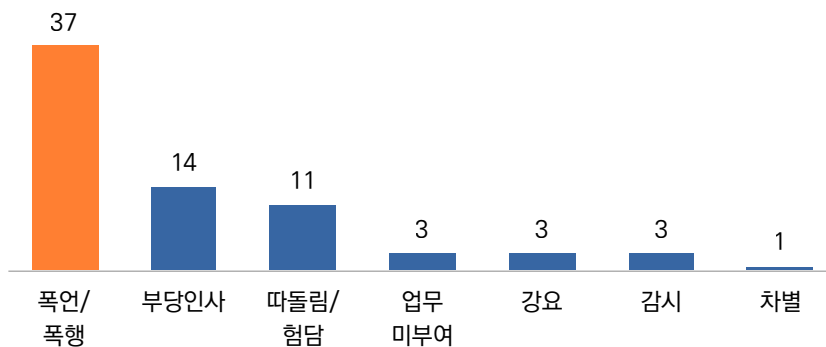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직장갑질119, 2022-3분기 직장인 인식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2.10.09.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온라인 조사, 엠브레인, 2022.09.02~09.08)  
 \*\*다음의 5개 항목(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업무외 강요, 부당지시)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

### ◎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폭언/폭행' 37%로 가장 많아!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유형'을 살펴보면 '폭언/폭행'이 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당인사' 14%, '따돌림, 협담' 11%로 뒤를 이었다.

[그림] 직장내 괴롭힘 유형별 접수 현황\*\* (상위 7위, %)



\*자료 출처 : 직장갑질119, 올해의 5대 폭언 보도자료, 2022.12.25.

## ◎ 시민단체가 꼽은 직장 5대 폭언, 한국의 직장인 ‘심각한 폭행 수준의 폭언’에 노출!

-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22년 접수된 512개의 폭언/폭행 사례 중 정도가 심각한 5대 폭언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 ▶ 한국사회의 악함, 그 중 직장생활에서 상사들의 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폭언들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세상과 인간의 악함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다.

[ 2022년 5대 폭언 사례 ]

### 1.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 다 자살했다”

회사 내외부에서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를 2년 이상 받는 중 퇴사 의사를 밝힘, 상사와 상담 중 “그런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 다 자살했다.”, “네가 어려서 그렇다. 멘탈이 약하구나.”라고 하였고, 정신과 진료 사실까지 말하며 그 만두고 싶다고 하자 “약 먹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정신병원 입원할 정도냐?”며 조롱 (2022년 3월)

### 2.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안 좋다는 걸 알고도 “너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그리 조언을 해줬건만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텐데” 같은 지속적인 폭언이 계속되었고 끝 내 못 버티고 퇴사를 했습니다. (2022년 10월)

### 3. “공구로 머리 찍어 죽여버린다”

9월부터 2개월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CCTV로 근무를 감시하며 마음에 안들면 “공구로 머리 찍어 죽여버린다”,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고 협박과 폭언을 합니다. 11월 말까지 버티고 퇴직금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퇴사를 강요하고 “나 같으면 쪽팔려서 그만 둔다”는 말로 또 괴롭힙니다. (2022년 11월)

### 4.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너 같은 새끼 처음 본다”

신입사원입니다. 회의를 하는데 사장님이 물어본 걸 대답하지 못했더니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너는 정말 안 될 놈이네”, “너 이 새끼 나랑 장난해? 씨발 지금 장난치냐?”, “너 같은 새끼는 처음 본다”는 말을 합니다. (2022년 5월)

### 5. “나에 대해 쓰레기같이 말을 해? 날 씨발 좆같이 봤구먼”

부장이 갑자기 저를 불러내어 쏟아낸 말입니다. “새끼야 인사도 안하냐. 너 이 새끼야 나에 대해 쓰레기같이 말을 해? 네가 날 평가해?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날 씨발 좆같이 봤고만.” (2022년 8월)

\*자료 출처 : 직장갑질119, 올해의 5대 폭언 보도자료, 2022.12.25.

# 2022년 세계 기독교의 7가지 고무적인 트렌드

## (7 Encouraging Trends of Global Christianity in 2022)

‘아론 얼스’(Aaron Earls)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수석 에디터  
(라이프웨이 리서치 뉴스레터, 2022. 12. 22)

당신이 지역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기독교의 세계적 특성을 잊기 쉽습니다. 선교사와의 네트워킹이나 해외여행도 현대 교회의 규모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교회가 정체되거나 심지어 축소되고 있다면, 다른 나라의 교회 상태도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고든 콘웰 신학교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가 공개한 통계는 기독교에 대한 더 나은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세계 기독교 현황 보고서(2022 Status of Global Christianity Report)에서 주목해야 할 7가지 고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 1. 종교적 믿음이 비종교적 믿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세속주의가 확산되고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인의 수는 1.3%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지만, 비종교인의 증가율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0.5%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히 무신론자의 수는 거의 정체되어 있어 매년 0.2%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든 콘웰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 무신론자 수(1억 4,700만 명)는 1970년(1억 6,500만 명)보다 적으며 그 수가 2050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특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1.2%의 성장률로 2022년 중반까지 거의 25억 6,0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될 것이며 2050년까지 그 숫자는 33억 3,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톨릭은 거의 12억 6천만 명의 신도를 가진 가장 큰 기독교 그룹으로 남아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두 기독교 그룹은 복음주의(1.8% 성장률)와 은사주의(Charismatics, 1.9% 성장률)입니다.

은사주의 기독교인들의 놀라운 성장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1900년에 오순절파 또는 은사주의자로 확인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미만이었습니다. 2050년이 되면 그 숫자는 10억 명을 넘어설 것입니다.

### 3. 성장은 남반구에서 가장 빠릅니다.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은 아프리카(2.8% 증가)와 아시아(1.5%)입니다. 2000년에 8억 1,4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유럽과 북미에 살았고, 6억 6,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살았습니다. 2022년에는 8억 3,8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북반구에 살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만 거의 11억 명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습니다. 1900년 유럽에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합친 것보다 두 배나 많은 기독교인이 살았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는 다른 어떤 대륙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아프리카에는 약 13억 명의 기독교인이 거주하며, 라틴 아메리카(6억 8,600만 명)와 아시아(5억 6,000만 명)는 유럽(4억 9,700만 명)과 북미(2억 7,600만 명)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이 살게 될 것입니다.

**4. 기독교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남반구에서 기독교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한 국가의 기독교인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1900년에는 전체 기독교인의 95%가 기독교국가에서 살았지만 2022년에는 그 수치가 53.7%로 떨어졌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인(50.4%)은 기독교인이 대다수가 아닌 국가에 살게 될 것입니다.

**5. 기독교인을 아는 비기독교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국가 밖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1900년에는 비기독교인의 5.4%만이 기독교인을 식별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18.3%로 증가했습니다. 2050년까지 비기독교인 5명 중 1명(20%)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알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1900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54.3%)이 복음화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28%로 떨어졌습니다.

**6. 2022년 9천만 권 이상의 성경이 인쇄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성경 인쇄도 함께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9,300만 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인쇄될 것인데, 이것은 1900년에는 500만 부, 2000년에는 5,400만 부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2025년까지 매년 1억 권의 성경이 인쇄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의 18억 권의 성경이 유통되고 있는데 2050년에는 23억 권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인도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9천만 명이 사용하는 텔루구어 사용자를 위해 최초의 텔루구어 성경을 개발하고 인쇄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경은 새로운 언어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7. 믿음을 위해 죽어가는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 ‘세계 기독교인의 현황’(the Status of Global Christianity)에서는 10년 동안 160만 명의 기독교인 순교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그들의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2022년에는 10년 동안 9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순교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의 수치나 추세에 상관없이 교회는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원자료 출처 : Lifeway research, 7 Encouraging Trends of Global Christianity in 2022, 2022.01.31  
(<https://research.lifeway.com/2022/01/31/7-encouraging-trends-of-global-christianity-in-2022/?ecid=PDM263383&bid=1559506595>)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26호\(2023년 1월 2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임대료 전망, 거래 활성화 필요성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88호\(2023년 1월 2주\)](#)

- 국정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경제정책 평가, 정부의 3개 개혁 방향 인식 등

[\[여야 설문조사\] 국민의힘 96% “정당한 수사”...민주당 98% “정치보복”](#)

국민일보\_2023.01.14.

◎ 사회 일반

[인구 자연감소 11만8003명... 1인 가구 1000만 임박](#)

국민일보\_2023.01.16.

[여성 결혼 연령도 높아진다... 30대 초혼, 20대보다 많아져](#)

여성신문\_2023.01.10.

[‘지원자 0명’ 지방대 속출... “벚꽃 피기 전에 잡아야?”](#)

KBS NEWS\_2023.01.15.

[“청년사장님 멋져요!” 했더니... “취업 못해 장사 뛰어들어요”](#)

매일경제\_2023.01.11.

[‘워라밸’ 1위 서울 아니다...가장 살기 좋다는 이 도시](#)

중앙일보\_2023.01.11.

[한국인, 지난해 명품 구입에 20조원 썼다... 세계 1위](#)

조선일보\_2023.01.13.

[한국 성별임금격차 26년째 OECD 최악... FT “한국 여성 능력 충분히 발휘 못해”](#)

여성신문\_2023.01.16.

[비자 받지 않고 여행... 한국 ‘여권 파워’ 세계 2위, 1위 국가는?](#)

조선일보\_2023.01.11.

**[통일과 나눔 재단 조선일보 여론조사, (조선일보)]**

[1. 2030세대 68% “우리도 핵무기 보유해야”](#) \_2023.01.11.

[2. 100명 중 41명 “통일은 축복”... 토론 거치자 67명으로 늘어](#) \_2023.01.11.

[3. “일본보다 중국에 더 거리감 느껴”](#) \_2023.01.11.

[4. 2030 “우리 세대가 가장 불운... 내집마련 기회 불평등하다”](#) \_2023.01.11.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경제 / 기업**

[사무실 돌아온 ‘판교맨’들 “재택 효율 떨어져” vs “복지 뺏긴 셈”](#)

동아일보\_2023.01.14.

[작년 82만 증가, 올해는 8만명대 예측…‘일자리 한파’ 경보](#)

중앙일보\_2023.01.12.

[“부장님, 유럽에 2주 다녀올게요”…이런 장기휴가 언제쯤?](#)

매일경제\_2023.01.16.

◎ **트렌드**

[칼퇴 후엔 쿠팡맨, 레고 되팔아 덕테크 … Z사원 생존법은 '부캐'](#)

매일경제\_2023.01.10.

◎ **건강**

[친절한 행동이 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헬스조선\_2023.01.12.

[간에 지방 가득? 성인 10명 중 4명 '지방간' 상태](#)

헬스조선\_2023.01.12.

[사소한 일로 폭발하듯 ‘버럭’하는 당신, 분노조절장애?](#)

동아일보\_2023.01.15.

◎ **국제**

[IMF 총재 "올해 세계 경제 힘든 한 해 될 것…연말 반등 예상"](#)

연합뉴스\_2023.01.13.

[‘야동’ 본 미청소년에 왜 보냐 물었더니…45%가 내놓은 놀라운 대답](#)

매일경제\_2023.01.11.

[중국,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됐다](#)

주간조선\_2023.01.16.

◎ **기독교 / 종교**

[교회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적 위상은…](#)

더미션(국민일보)\_2023.01.11.

["개신교·비개신교인 정치성향 차이 적지만 동성혼 인식차 커"](#)

연합뉴스\_2023.01.12.

◎ **칼럼**

[\[셋강에서\] 목사에게 기본소득을](#)

국민일보\_2023.01.12.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대구칠곡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영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선교협회재단,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레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 후원 개인 |

가우진, 강영원, 강정남, 강종희,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권순홍, 김고은, 김관상, 김기혁, 김동찬, 김동하, 김명준,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식, 김성은, 김성현, 김숙정, 김시은,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기,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인수, 김종천, 김재욱, 김주형, 김지한, 김 찬, 김태철,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근, 나윤만, 남기환, 남도현, 남상태, 노기환, 노현민,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상훈, 박세용, 박승수, 박영철, 박영호, 박재덕,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지혜,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변형석,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경복, 서기원, 서연우, 서영진, 서우정, 서은영,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승민,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심명현, 안요한,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양승일, 엄정석, 여삼열, 오강일,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영민, 유진웅, 유형창, 윤도형, 윤동하, 윤성덕, 윤여민, 윤영조, 윤정국, 윤치호, 윤희경, 이경만, 이경선, 이국희, 이기원, 이광호, 이대식,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성, 이상호, 이석윤, 이석준, 이선진, 이성근, 이성덕,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재혁,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형근,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원하나, 장명철,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준영, 장진수, 장재영, 장형철, 전근영, 전병철, 전용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할, 정영자,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진혁, 정재웅,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몽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도환, 지연희,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인화,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명호,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최호균, 한동준, 한병록, 한영숙,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 신규 후원 |

산서울교회(담임목사 장동휘), 화전중앙교회(담임목사 김부일), 서울동성교회(담임목사 최정현), 충신교회(담임목사 이전호)  
명성제일교회(담임목사 박영철)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 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민선영, 유명민, 송예슬, 김찬솔, 한미경

##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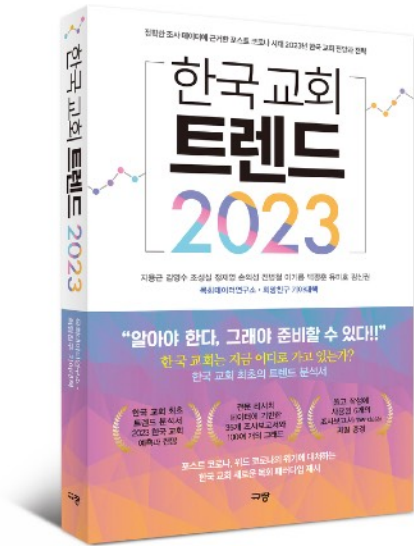
## | 연구소 소식 |

### 휴간 안내

다음주(1월 24일)는 설날 연휴(대체 휴일)로 [넘버즈]를 한 주 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출간 |

-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예측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국내 최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록으로 원고 작성을 위한 6개 조사보고서를 드립니다.)

보도 자료

책 구입 안내